

정광천 “K-항공 기술·노하우로 아세안 중심 해외시장 공략”

〈아이비리더스 대표〉

아이비리더스, 미래 먹거리 모색

과천으로 본사 이전 ‘제2의 도전’
20여 년간 항공교통 등 노하우 축적
‘항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도약

20년 넘게 항공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온 아이비리더스가 도심항공교통(UAM)과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 모색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K-항공’ 수출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정광천 아이비리더스(IB Leaders) 대표는 31일 경기 과천에 있는 본사에서 “항공 분야는 편의성과 가성비만 따질 일은 아니다. 안전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업력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비리더스는 최근 과천 문원동에 있는 과천펜타원에 터를 잡고 서울 구로에 있던 본사를 이전, ‘제2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광천 대표는 올해초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까지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

말으며 회원사 애로해결, 시너지 모색, 글로벌화 등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Innovation business)’의 약자인 아이비리더스는 정 대표가 2003년 5월 창업한 회사다.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공항운영관리시스템, 항공안전시스템, 항공정보시스템 등 항공기 운항과 공항 관제 등에 관한 다양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7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 가운데 85% 가량이 개발자일 정도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이노비즈협회와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광천 회장(왼쪽 3번째)이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정 대표는 “우리가 개발해 선보인 대표적인 솔루션 ‘스카이로드(SKY-ROAD)’는 3차원 공역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항공기가 출발해 항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길을 그리는 데 쓰인다. 손으로 그렸던 과거엔 보름에서 1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하루만에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40년이면 전세계 시장 기준으로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UAM·UTM(무인비행장치교통시

스템)은 정 대표와 아이비리더스가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분야다. 20년 넘는 업력과 기술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틈새를 비집고 ‘항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다.

아울러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공항에서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공항과 해외의 항공 관련 기관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이지만 국내에선 이미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다음 차례는 해외다. ‘K-항공’ 분야에서 수출에 일조하는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6년이 지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다. 개발자 인건비 등은 올랐는데 5년 전 수준의 비용으로 기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30일엔 이노비즈협회장 자격으로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들의 방산분야 진출 및 성장 추가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기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 기업이라면 더 도전적으로 R&D를 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선진국을 뚫는 것은 다소 힘이 들겠지만 중진국, 후진국은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이 더욱 많이 도전하고 실전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네카오, 올림픽 ‘특별 페이지’ 커뮤니티 오픈

〈네이버+카카오〉

이달 11일까지 전용페이지 운영
네이버, 종목별 대표 응원방 38개
카카오, 18개 응원 ‘테이블’ 개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림픽 기간 중 특별 커뮤니티 기능을 선보이며 올림픽 대표 포털 사이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94.0%로 약 4,774만 명에 달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대표 앱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앱 이용자 수는 4291만 명,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4645만 명에 달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5%가 두 기업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이다.

3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림픽 기간 중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개막과 동시에 특집 페이지를 열어 메달 및 선수단 정보, 경기 일정 등 파리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한편, ‘오픈톡’ 서비스에도 올림픽 기간 중 대표

응원방, 양궁, 수영 등 종목별 응원방 총 38개를 특별 운영한다. ‘PARIS NOW 대한민국 응원방’에서는 양궁 장혜진 해설 위원, 태권도 김유진 선수 등 국가 대표 선수, 코치, 해설 위원, 스포츠기자 등이 직접 파리 현장에서 생생한 콘텐츠를 전하고, 이용자와 소통한다.

네이버 스포츠 주관별 리더는 “경기 결과, 일정, VOD 영상 등 올림픽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 파리 리포터가 함께 참여하는 오픈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팬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음 카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에 18개의 올림픽 종목별 응원 테이블도 개설했다. 이용자들은 글·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하며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다. 운영기간 중 게시글과 댓글 활동으로 일정 점수를 달성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교환권도 선물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고! 파리(Go! PARiS)’ 탭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로 가볍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4개의 오픈채팅 라이트 대화방을 개설한다. 실

시간 응원과 승부 예측 등 올림픽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파리에서 온 소식’, 릴레이 소셜과 랜선 프랑스 여행 등 활동이 이뤄지는 ‘파리에 가면’,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나 명장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기장 밖 수다방’ 등의 대화방이 있다.

두 기업이 이번 특집 페이지에 이용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한 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 때문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몰입감과 충실도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에게 형성된 몰입감은 해당 커뮤니티의 기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여타 콘텐츠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이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등 다양한 2차, 3차 행동을 가져온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올림픽에서 내놓은 바와 같은 명확한 주제가 존재할 때 이용자들은 자유주제 커뮤니티일 때보다 30% 이상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소기업계, ‘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부여’ 건의

의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계가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시 공동행위 적용을 확대하고 단체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의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자장 그리고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



의원식 국회의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外人, 한국서 창업 도전하세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개소
외국인 국내 창업·정착 지원

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창업비자를 개편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말부터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창업비자를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틱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개소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해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iM뱅크와 ESG 경영 확산 ‘맞손’

금융 인센티브·기업진단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iM뱅크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iM뱅크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ESG 심층진

단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해 연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사항은 ▲중소기업 ESG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실시 ▲ESG 진단 참여기업 대상 금리우대 ▲중소기업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계좌 개설 및 사전검증 플랫폼 제공 ▲ESG경영 실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이다. /김승호 기자